



## 순천 선암사 도난 佛畵 '팔상도' 서울 경매시장서 찾았다

**경찰, 소유자 귀국 종용** 지난 1980년 도난당했던 순천 선암사의 불화(佛畵)인 '팔상도'(八相圖·사진)가 최근 경매시장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암사 '팔상도'는 18세기에 그려진 8폭짜리 불화로, 시가 1억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팔상도'는 지난 2월 말 서울 옥션 경매에 출품 예정작으로 발표됐다가 추정가에 대한 옥션 측과 소유자인 사업가 윤모(55)씨 간의 견해차로 출품이 취소됐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 작품이 도난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으며, 윤씨는 "훤친 물건인지 모르고 작품을 구입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그림을 자진 반납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은 12일 체포영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을 발부받고, 미국에 체류 중인 윤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윤씨는 '팔상도' 2폭을 80년대 초반 서울 청계천의 한 고미술점에서 구입해 최근까지 소장한 혐의다.

경찰은 또 선암사가 비슷한 시기에 분실한 11폭 그림 '33조사도' 중 3폭을 1987년 골동품상에게서 구입해 소유한 제약회사 대표 김모(69)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선암사는 80년(남자 미상)에 ▲팔상전 33조사도 4폭 ▲팔상전 팔상도 8점 ▲향로암 신중도 1점 등 비지정 문화재 28점을 도난당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팔상도(八相圖)=석가모니의 일생을 8장면으로 압축하여 묘사한 그림. 우리나라의 경우 1447년에 제작된 석보상절(釋譜詳節)의 목판 팔상도가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 경찰, 광주 동구청 '카드깡 의혹' 조사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광주시 동구청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년간 속칭 '카드깡'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청도 '카드깡' 의혹 보도를 했다. D신문사 간부로부터 폭행당한 주간지 '시민의 소리' 이모 기자(38)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인터넷 ‘지식검색’ 맹신은 금물”

주부 이모(42·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컴퓨터를 켤 때 윈도 XP 초기화면에 뜨는 '사용자 계정'이 귀찮아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녀는 검색서비스에 올라온 답변을 따라서 레지스트리(Registry·환경설정 및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해 둔 장소)를 수정했으나 부팅이 되지 않았다. 이씨는 결국 서비스센터 직원을 불러 컴퓨터를 수리하는 낭패를 겪었다.

사극 '서동요'가 인기를 끌면서 백제의 무왕에 대해 묻는 질문이 많다. 답변 중엔 무왕이 백제의 40대 왕이라거나, 신라와 싸우다 전사했다는 오답이 종종 올라온다. 무왕은 백제의 30대 왕이며,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백제왕은 26대 성왕이다.

포털사이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검색서비스나 일반 검색정보가 부정확한 게 많다. 일부 포털의 경우 4천만 건이 넘는 각종 정보가 널려있으며, 매일 5만~6만 건이 새로 생성되고 있다.

이 같은 DB는 네티즌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 잘못된 사실을 진실처럼 여기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디 'jab'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에서 '처음엔 밤새서 지식검색 서비스를 봤지만 지금은 신뢰가 떨어져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털 '다음'의 경우 이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페검색 2.0' 베타 서비스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600만 개에 달하는 카페에서 전문가들이 게재한 정보를 찾은 뒤, 기존의 검색서비스보다 양질의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도 문제를 인지하고 전문 검색요원을 배치, 지식정보를 검색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정보가 쏟아져 역부족이다. 진실을 알고 있는 네티즌이 지적하기 전에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조선대학교 한승조(전자정보공과대학) 교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더욱 질 높은 정보를 간추려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가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기능경기대회' 한복 옷감 재단**  
12일 광주공고에서 열린 2006년 광주기능경기대회 한복 부문에 출전한 참가자들이 옷감을 재단하고 있다. 18일까지 7일간 광주공고 등 10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40여명이 참여해 37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모래 채취 투자 “고수익” 속여 113명에 30억원 행간 2명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억원의 행간 개발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 이형택 검사는 12일 모래 채취사업과 금광개발사업 등을 미끼로 100여명의 소액투자자로부터 30억원 상당을 받아 행간 2명(유사수신 및 사기)로 광주 D산업 대표 김모(65)씨와 같은 회사 이사 김모(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모래 채취와 금광개발 등의 사업아이템을 광고한 뒤 "한 달 내 원금 3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가정주부 등 소액투자자 113명에게 30여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자본금 한푼 없이 회사를 설립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미리 약정한 수익금을 매일 3%씩 지급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유도한 뒤, 뒷순위 투자자를 앞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사무실에 현장 공사 사진 등을 부착해 놓고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진 모래 채취사업 현장 등을 견학시키면서 투자자 유치를 해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1만원권·문화상품권 위조 목포경찰, 3명 검거

목포 경찰은 12일 스캐너·컬러복사기로 문화상품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 시중에 유통한 혐의(유가증권의 위조 등)로 소모(26·대전시 서구)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34)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연예2차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  
문의 (062)366-4220

**재소자, 동료에 폭행당해 중태**  
지난 11일 밤 11시45분께 목포교도소에서 특수감도 혐의로 복역 중인 재소자 이모(24)씨가 살인죄로 수감된 김모(42)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졌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 텔런트 유혜정 음주운전 '면허 정지'

○영화 '가문의 영광'에 출연한 텔런트 유혜정(여·35·사진)씨가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 100일 정지를 당했다고.

○서울 성동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32분께 서울 암사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인 상태로 자신의 일제 4륜구동 레저용차량(RV)을 운전했다는 것.

○유씨는 "남편(서용민, LG트윈스 내야수)의 야구경기를 관람하면서 캔맥주를 3분의 2 정도 마셨다"고 진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시몬스 매트리스, 시몬스 베드, 시몬스 소파, 시몬스 의자, 시몬스 테이블, 시몬스 조명, 시몬스 가구, 시몬스 생활용품

시몬스 매트리스, 시몬스 베드, 시몬스 소파, 시몬스 의자, 시몬스 테이블, 시몬스 조명, 시몬스 가구, 시몬스 생활용품

**세계최초 공기과학 냉+난방기**

공기를 에너지로 유지비를 1/3로 유해가스를 0%로

사용유금을 십만원 이하로 더 저렴!

3년 무상보증

공기과학 냉+난방기